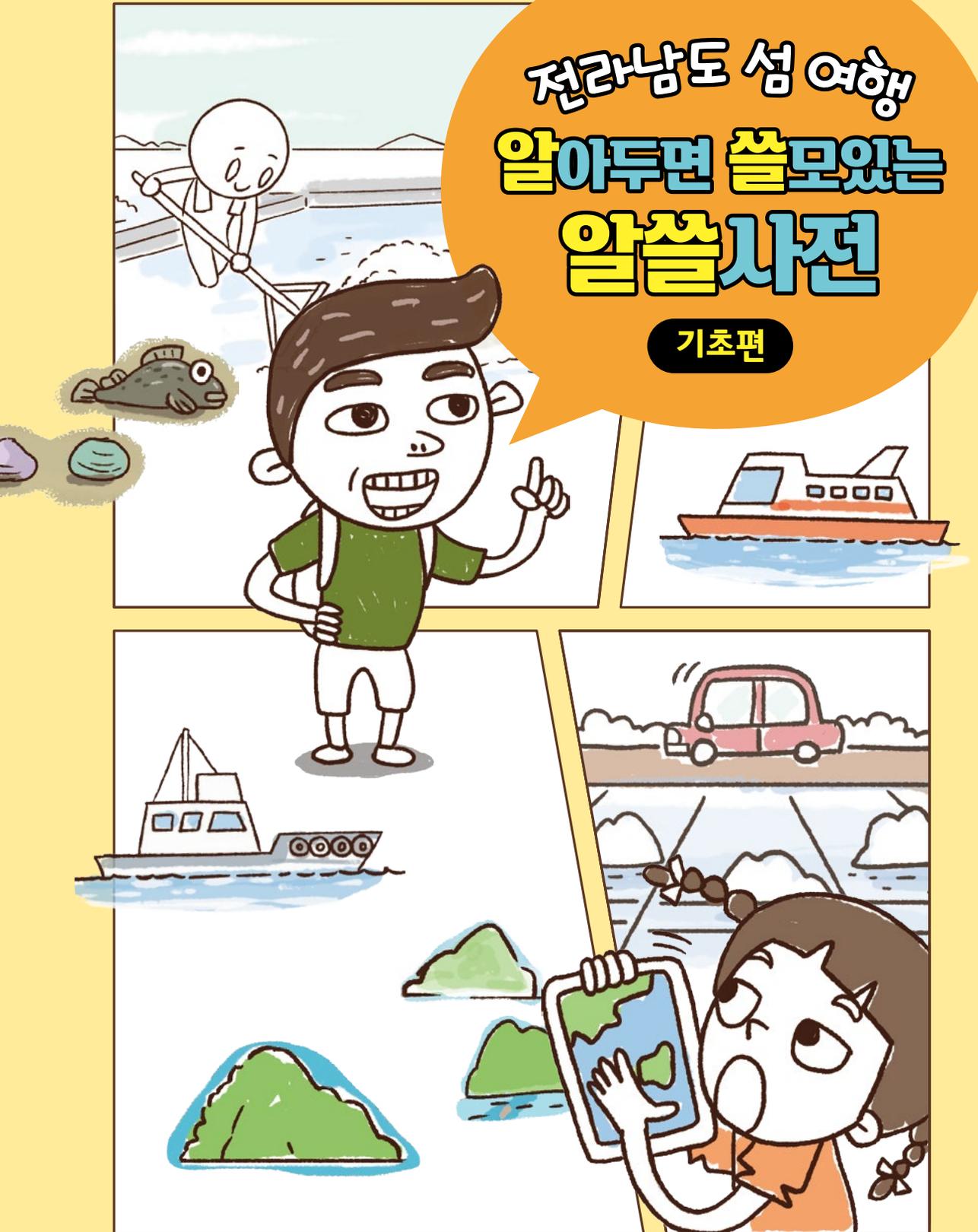


전라남도 섬 여행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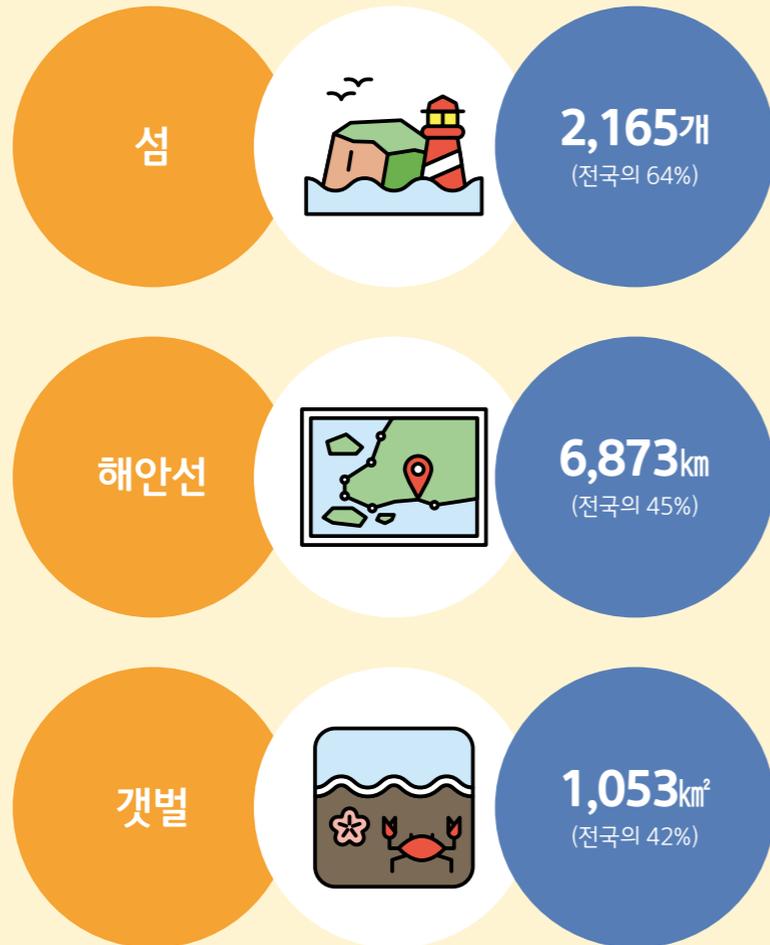
기초편





전라남도 섬 여행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사전은 전남 섬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매력을 알리고, 섬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전남 섬을 처음 접하거나 전남 섬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두면 더 즐거운 섬의 상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세요!

전남의 특별한 매력, 해양자원 현황



출처 : About 전남의 섬(<https://islands.jeonnam.go.kr/jnia/main.do>)

Level.1

한나. 여객선
두이. 다도해
서이. 물때
너이. 노두
다서. 소금밭
여서. 갯벌
일고. 우물
여덜. 해양쓰레기

About 전남의 섬
바로가기

가고 싶은 섬
자세히 보기

전남섬여행
날씨확인

전남 시·군별 섬 & 인구 현황

기준



총 섬 수
2,165개



무인도
1,894개



유인도
271개



총 인구수
165,995명

진도

253개 섬
210개 섬
43개 유인도
30,066명 인구

완도

258개 섬
204개 섬
54개 유인도
49,403명 인구

영광

64개 섬
54개 섬
10개 유인도
572명 인구

무안

28개 섬
27개 섬
1개 유인도
43명 인구

영암

2개 섬
2개 섬
0개 유인도
0명 인구

해남

60개 섬
53개 섬
7개 유인도
842명 인구

강진

8개 섬
7개 섬
1개 유인도
50명 인구

장흥

14개 섬
12개 섬
2개 유인도
159명 인구

보성

21개 섬
18개 섬
3개 유인도
320명 인구

고흥

230개 섬
207개 섬
23개 유인도
9,779명 인구

광양

3개 섬
1개 섬
2개 유인도
13,191명 인구

순천

2개 섬
2개 섬
0개 유인도
0명 인구

여수

353개 섬
308개 섬
45개 유인도
22,009명 인구

목포

11개 섬
5개 섬
6개 유인도
774명 인구

신안

858개 섬
784개 섬
74개 유인도
38,787명 인구

여행의 시작

나래야~ 준비 다 됐냐?

네~ 우리 오늘 섬 여행 가는거죠?

아빠랑 나래랑 처음으로 섬에 가는 거야~

섬에 가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겠죠?

글쎄~ 앞으로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랑게~

자, 인자 출발~

아빠

재미와 배움을 선물하는 다정한 모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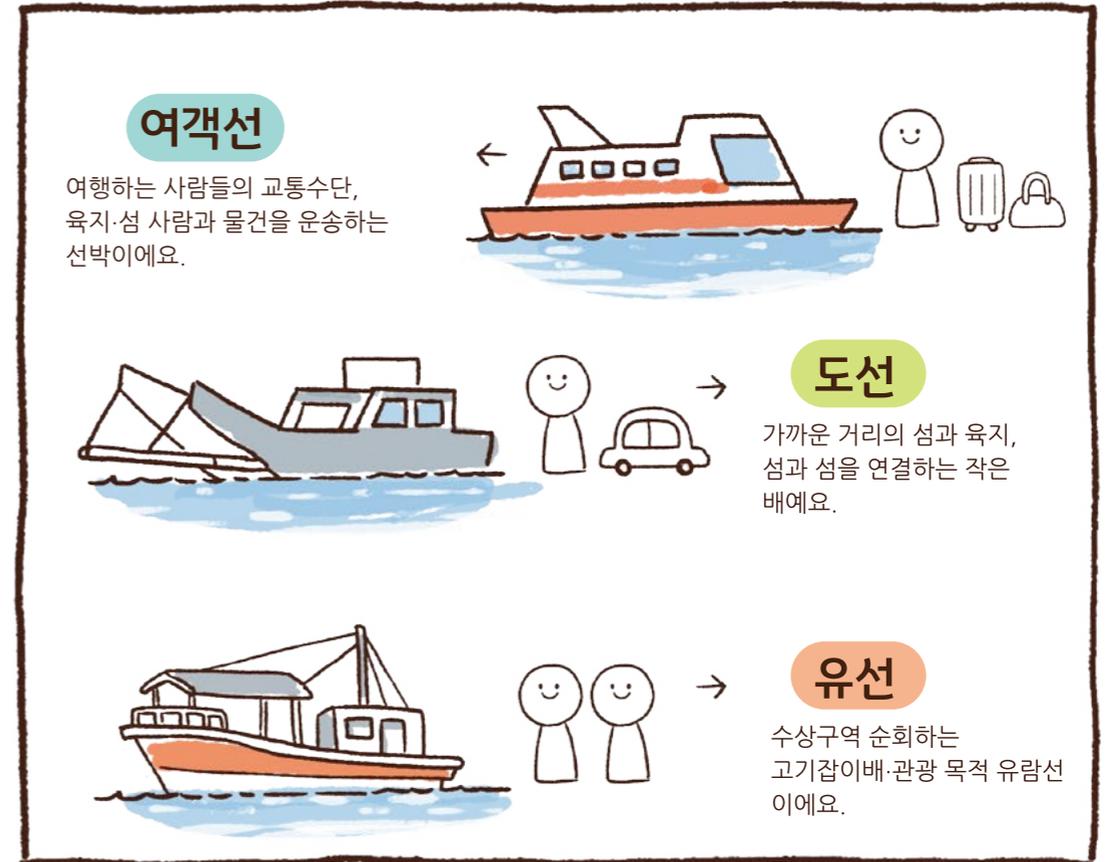


나래

섬 여행은 처음인 호기심 많은 어린이



한나 여객선



섬 단어 사전

- **여객선(旅客船)** 바다 위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는 배예요. 육지와 섬을 연결하면서, 사람들이 섬으로 여행을 가거나 필요한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해요. 이 배는 해양수산부의 관리를 받으며, 해운법에 따라 운영된답니다.
- **도 선(渡 船)** 가까운 거리의 섬과 육지, 또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작은 배예요. 주로 짧은 거리를 운행하며, 사람과 물건을 실어나르는 데 사용돼요. 도선은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으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운영돼요.
- **유 선(遊 船)** 물 위에서 관광이나 고기잡이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배예요. 일정한 구역을 돌며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유람선도 유선의 한 종류랍니다. 유선도 도선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답니다.

여객선, 도선, 유선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바다 활동을 돕고 있어요!

두이 다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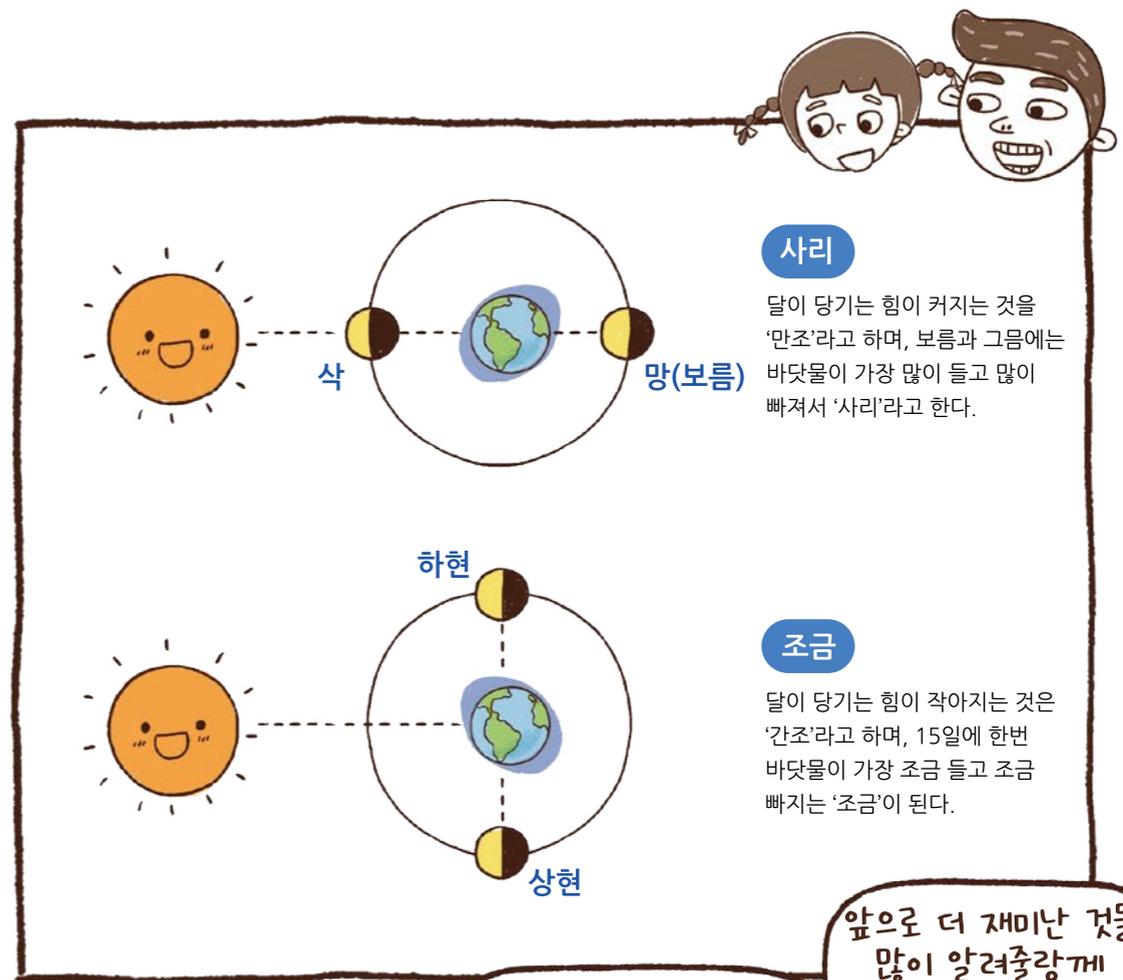
섬 단어 사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주변의 많은 섬들과 바다를 보호하는 특별한 공원이에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입니다! 서남해안의 약 1,700여 개 섬이 모여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전라남도의 신안·진도·완도·고흥군, 여수시에 걸쳐 있어서 정말 넓고 다양한 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공원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사람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장소**랍니다. 섬마다 특별한 이야기와 멋진 풍경이 가득하고, 배를 타고 섬을 구경하거나 자연과 하나 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해요.

서이 물때



바닷물은 하루에 두 번 들어왔다 나가는걸 반복해야. 물이 빠져가는 썰물에는 바닷물이 낮아져서 간조, 다시 물이 들어와지면 밀물,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니까 만조라고 해본단다.



사리
달이 당기는 힘이 커지는 것을 '만조'라고 하며, 보름과 그믐에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고 많이 빠져서 '사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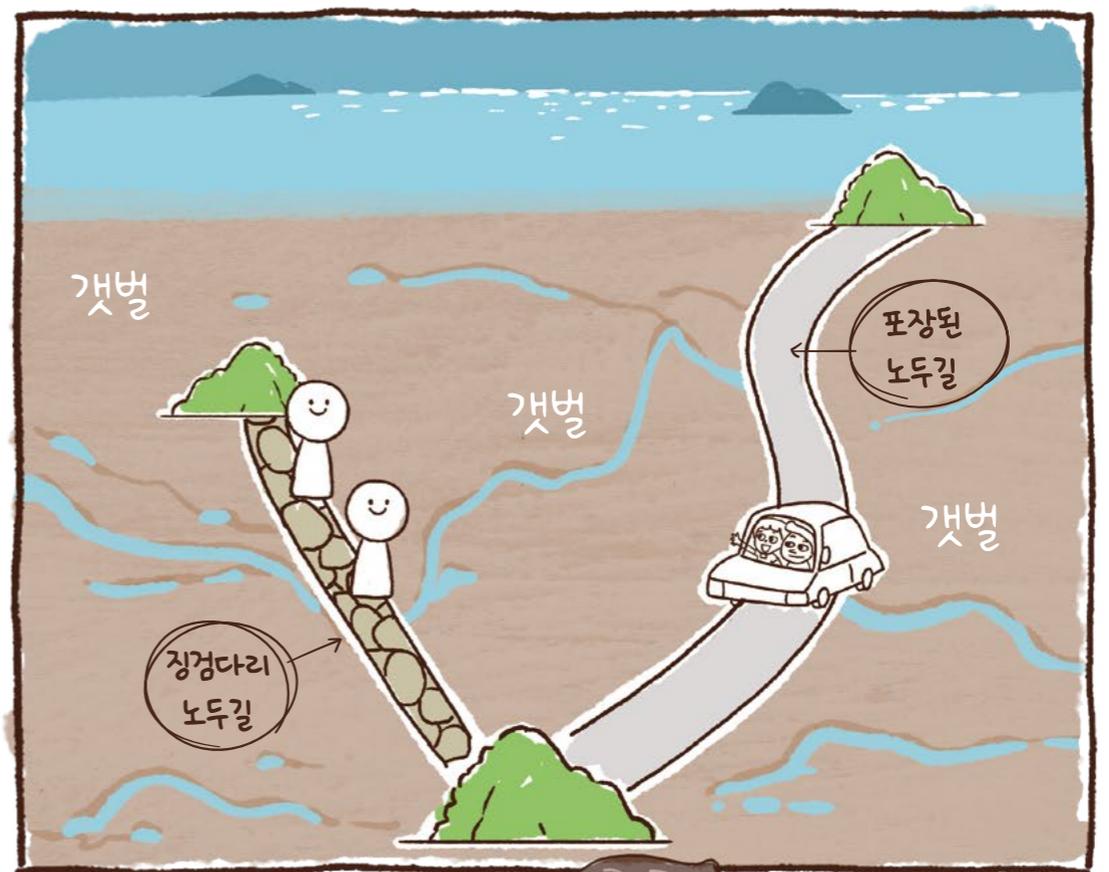
조금
달이 당기는 힘이 작아지는 것은 '간조'라고 하며, 15일에 한번 바닷물이 가장 조금 들고 조금 빠지는 '조금'이 된다.



섬 단어 사전

조금과 사리
밀물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썰물은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말해요. 바닷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 때문이에요.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만조와 가장 많이 빠지는 간조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씩, 15일 간격으로 특별한 물때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과 사리예요. 조금은 바닷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고 적게 빠지는 때를 말하고, 사리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때를 뜻해요. 특히 사리 때는 물살이 빠르고 세니까 물놀이를 할 때 조심해야 해요! 물때를 잘 알고 있으면 바닷가에서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답니다.

너이 노두



섬 단어 사전

노두길
노두길은 갯벌 위에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 같은 길이에요. 이 길은 주로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해 주는데, 바닷물이 빠지면 길이 드러나고, 물이 들어오면 다시 사라지게 돼요.
노두길은 돌을 쌓아 만든 전통적인 길도 있지만, 물을 막아 만든 길이나 시멘트로 포장된 길도 있어요. 예전에는 섬 사람들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소금밭

아빠 땅에 하얀 산들이 있어요!

그게 다 소금이란다~ 내려서 구경 해볼까?

우와!! 네!

정답! 염전에서 만든 소금은 천일염이라고 허가도 해야~

여기는 염전 이란 곳인데, 네모난 땅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곳이야.

우리가 먹는 소금이요?

천일염은 갯벌에 네모난칸을 만들어가고 바닷물을 가두버려서 태양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을 말혀~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의 90%가 전남에서 만들어부니까 전남이 세계 최고의 천일염 생산지로 유명하지 않겠냐~

특히 전남 신안은 넓고 청정한 갯벌이 있어서 명품 천일염을 만들기 좋은 곳이란다.

염전에 오면 소금 만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음개~

앗! 저도 체험 해볼 수 있어요?

그럴줄 알고 우리 나라랑 아바랑 염전 체험 신청받았제~ 얼른 가져임!

레츠고우!!!

섬 단어 사전

천일염과 염전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넣고 태양과 바람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에요. 염전은 이렇게 천일염을 만드는 장소를 뜻하죠.
 염전에서는 바닷물을 흘려 넣은 뒤, 물이 증발해서 농도가 점점 높아지도록 작업을 반복해요. 마지막에는 바닷물 속에 남은 소금이 모여서 천일염이 만들어진답니다.
 천일염은 가공된 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도 깊고 풍미가 좋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사용하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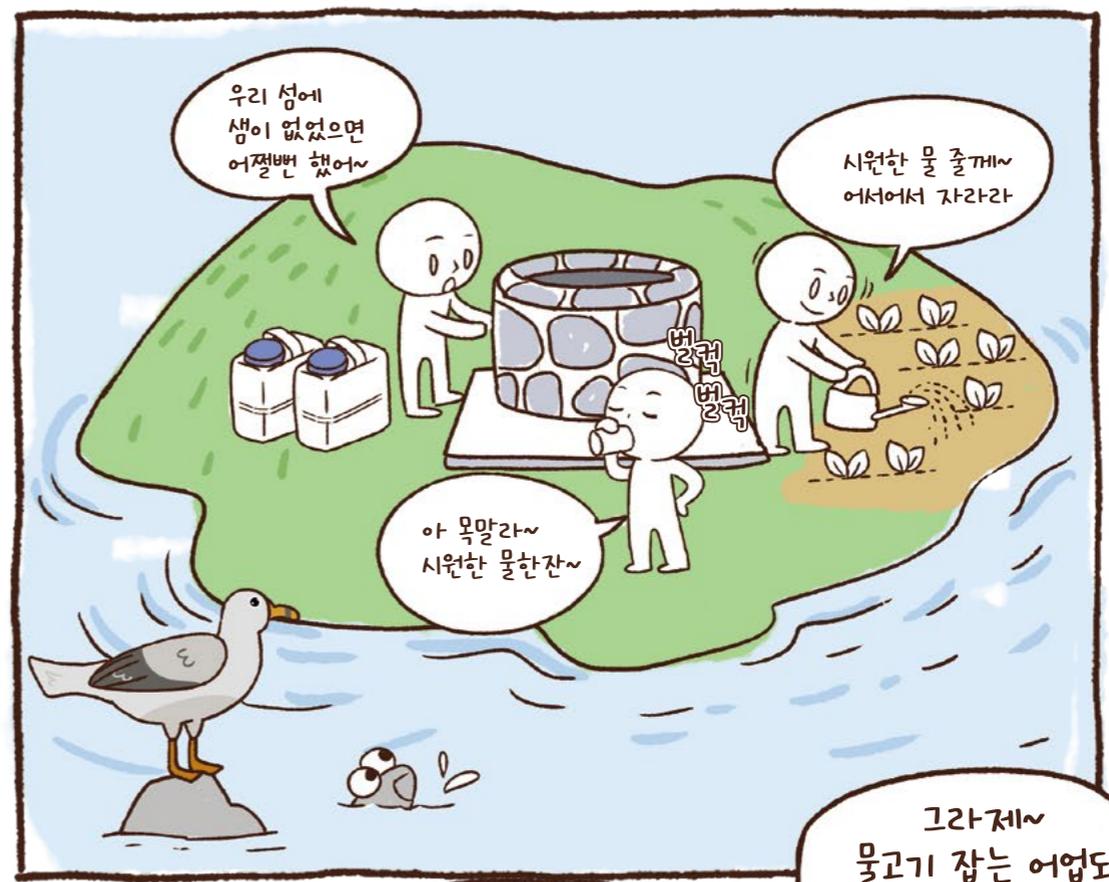
여서 갯벌



섬 단어 사전

갯벌
 갯벌은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넓고 평평한 땅이에요. 이곳은 바다 생물들의 집이자, 사람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곳이에요. 전라남도 갯벌에서는 조개, 게, 낙지 같은 해산물이 많이 나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있어요.
 특히, 전라남도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고 귀한 자연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답니다. 사람들이 갯벌에서 천일염을 만들기도 하고, 갯벌 체험을 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즐기기도 해요.
 전라남도 갯벌은 우리나라의 자랑이니, 모두가 깨끗하게 지켜야겠죠?

일고 우물



섬 단어 사전

우물
 섬에서는 바닷물이 많지만, 바닷물은 짠맛이 나서 그대로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샘이나 우물을 사용했어요. 샘은 땅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이고, 우물은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한 거예요.
 요즘 섬에는 수도시설을 통해 민물(짠맛이 나지 않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과거보다 물을 얻기가 훨씬 쉬워졌지만, 물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답니다. 바닷물이 많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했던 섬에서는 물을 아껴 쓰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었어요. 우리가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섬과 자연을 돕는 일이에요!

여덟 해양쓰레기

아빠 저 사람들은 뭐한대요?

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줍고 있단다.

기후 변화 때문에 섬 사람들 피해도 많고야.

공게 말이다. 꼭 와서 버린다기보다 여기저기서 버려진 쓰레기가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오면서... 바다가 아프게되지.

바다에 버리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쓰레기가 엄청 위험한거네요! 이거 다 주워버릴래요!

친구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그러까? 이거시 다~ 바다랑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은게.

아따 우리 나라 덕분에 섬도 바다도 좋아하잖아.

섬 단어 사전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떠밀려온 플라스틱, 병, 캔, 그물 같은 다양한 쓰레기를 말해요. 바다에는 조개, 낙지, 물고기, 거북이, 고래처럼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해양쓰레기가 많아지면 이 생물들이 다치거나 먹이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면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 변하고, 물고기나 조개, 낙지가 그걸 먹게 돼요. 결국, 우리가 그 생물을 먹으면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받게 되죠.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려면 쓰레기를 줄이고, 바다에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바다는 모든 생물의 집이니까요. 우리가 바다를 잘 돌보면 조개와 낙지, 물고기 친구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답니다!

전라남도 섬 여행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사전** 기초편

발행처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발행일 2024년 12월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기획·제작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감 수 김 준(전라남도 섬가꾸기 자문위원)

스토리 김경민

일러스트 명승희

디자인 제작 종로인쇄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전라남도 섬 여행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사전

기초편

